

1단계로 완화됐건만... 광주 관광활성화는 안갯 속

시티투어 운행 재개, '남도패스'도 공동 상품도 불안감에 이용률 저조...나라장터 활용도 낮아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50일 만에 1단계로 완화됐다. 그러나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관광 활성화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면 중단한 시티투어 운영을 이번 주부터 재개하고, 광주·전남 통합상품인 '남도패스' 등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시티투어는 '오월의 버스'와 '100년의 버스' 등 테마형 2개 노선, 무등산지질명소투어 등 순환형 4개 노선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남도패스 카드는 서울 용산, 광주 송정, 여수, 목포, 순천 KTX역 여행센터 외에 현장판매처를 늘리는 한편 호남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무안공항 공동 환대프로그램도 재가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리적 불안 등 코로나19 후

유증과 크고작은 행정상 약제들이 여전히 관광 활성화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티투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좌석당 1명씩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m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반도막 내지 3분의 1 탑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테마형은 종전 30명에서 15명 이하, 순환형은 4개 코스 중 전당권 문화, 빛고을 남도, 체험관광 콘텐츠 투어 등 3개 코스가 40명에서 20명 미만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개최 예정이던 비엔날레가 내년 2월로 연기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프로그램 대다수가 백지화되면서 '관광 특수'가 사라진 점도

약제다.

광주·전남지역 숙박, 교통,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관광 할인상품인 남도패스 역시 지난해 광주 9000만원, 전남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올해 실적은 코로나19로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시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호남권 관광활성화협의회도 코로나19 여파로 없던 일이 됐고, 국비 8억원이 투입된 무안국제공항 공동 환대 프로그램도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구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한 공동 관광마케팅도 코로나19로 품품 얼어붙어 실종된 지 오래다. 광주지역 260여 여행사 대부분도 코로나19 악재로 개점 휴업에 가까운 불황을 겪고 있고, 전세버스 업계도 도미노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민간공화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 간 미묘한 갈등도 행정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여행상품 계약도 광주는 9월 말까지 등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남도, 관광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있지만 심리적인 불안과 경제적 타격이 워낙 커 뾰족한 대안이 없다. 고민이 깊다"고 했다.

전고필 전라도지오그래픽 대표는 최근 광주 관광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관광산업 규제 완화와 함께 관광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고영임 심비호협동조합 대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여행 대책, 공적여행을 위한 소규모 여행 상품 개발, 스타트업 공적여행 지원 사업, 포스트 코로나 관광 공동개발 등의 관광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내전과 함께 문화전당 시설 살펴보는 김예지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안내전 조이와 함께 1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AI·구제역' 전남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축산차량 통제구간 지정 생분뇨 타 지역 반출입 금지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3년 차 비발생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31개소)도 지정해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이동통제에 들어갔으며,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 134대를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 인근농장 303개소를 매일 소독한다.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한 차단 방역 홍보를 위한 입간판 25개와 현수막 61개, 발판소독주 41개도 설치했다.

특히 순천만, 영암호, 해남 금호호·고천암 등 주요 철새도래지 4곳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오리농장 주변으로 생석회 차단벨트를 조성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와 주 1회 도축장 검사도 강화

했다. 김정환기자

본사사령

김 광 휘

지역사회부
곡성지역국장

의 원 면 직

2020년 10월 14일

동구, 서남동 생태마을 추진단 "불법투기 NO"

광주 동구 서남동 생태마을 추진단(단장 선하영)은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환경정화활동과 화단조성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남동 '생태마을 추진단'은 관내 원룸거주 대학생 및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다. 추진단이 직접 쓰레기 투기 현장에 참여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 주도 사업이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서남동 마을공동체(대표 이공순), 조선대학교 환경동아리 '그린액션'(회장 선하영), 서남동 부녀회(회장 문호심) 등 추진단 30여 명이 동참했다.

서구 화정2동 "꿈자람 수영활동 지원"

광주 서구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희자)는 지난 12일 관내 저소득층 아동 중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꿈자람 수영활동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아동 중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정서 등 발달지연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장협의체는 조순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5명을 선정, 육구조사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기초 생존 수영 등 다양한 수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구, 민간 위탁사업 전반 살펴본다

광주 남구는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 투명성을 위해 오는 11월 초까지 민간 위탁 및 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광주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대상시설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강하 미술관을 비롯해 남구청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남구 생활문화센터이다.

남구는 각각의 해당 시설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의 적정 여부와 예산·회계의 집행 및 정산, 위탁 사업의 수행 및 목표 달성도, 구청 관리부서의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실태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북구, 임대료 없는 청년창업지원공간 마련

광주 북구가 청년들의 창업공간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각화주공아파트 내에 창업지원공간을 마련하고 청년창업기업에 임대료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북구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창업한지 3년 이내거나 예비창업에 해당하는 6개 기업을 모집·선정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기업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공모시스템, 공용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확정

광주 광산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6% 인상된 시급 1만52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문화생활까지 고려해 책정하는 급여. 2014년 광주지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광산구는, 해마다 적절한 인상을 적용해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 조건 보장에 힘써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7원 인상된 수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다음 광산구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례남에서 제안한 슬로리더십이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